

## 강기정 광주시장 “유기적 협업 통해 차세대배터리 미래 준비”

세방리튬배터리(주)서 산·학·연·관 현장 정책간담회 개최  
미래 배터리산업 생태계 구축, 전문인력 육성 등 논의  
차세대배터리 산업 육성 위한 기업 발굴·육성 제안

차세대 국가주력 산업으로 손꼽히는 이차전지(배터리) 분야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산·학·연·관 논의의 장이 펼쳐졌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지난 2일 오후 평동산단에 위치한 세방리튬배터리(주)에서 산·학·연·관 11개 기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를 준비하는 차세대배터리 기술 확보 및 지역 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현장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우중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친환경에너지연구센터장은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리튬이온배터리는 높은 확률은 아니지만 이번 카카오톡 사태를 빚은 데이터센터 화재와 같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성능·저가화·안전성을 강화한

차세대배터리 개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는 배터리 소재에 의한 자원자립이 문제가 될 수 있어 다각도로 연구해야 한다”면서 “배터리팩 생산 기업, 부품업체 등을 발굴·육성해 지역에서 유기적 협력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방법도 단기간에 지역 산업화를 이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 참석자들은 지역 배터리산업 생태계 구축하고 차세대배터리 분야를 선도하기 위한 ‘이차전지 시장 및 연구개발(R&D) 동향’을 중심으로 광주시가 나아갈 방향 등에 논의했다. 이와 함께 산·학·연·관 협력을 통한 차세대배터리 개발, 전문인력 육성, 연구개발(R&D) 및 지역 기업 간 협력 강화(트랙레코드) 등

의 의견이 제안됐다. 강 시장은 “광주에 온 기업이 혁신제품을 만들고, 만들어진 제품이 실증되고 생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 지원방안을 찾겠다”며 “기술혁신과 생태계 구축을 통한 차세대배터리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데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논의에 앞서 김대웅 세방리튬배터리(주) 대표이사의 안내에 따라 공장 생산라인을 살펴보기도 했다. 세방리튬배터리(주)는 1천500억원을 투자해 지난해 10월 준공된 리튬이온배터리 제품 조립생산 전문 기업으로, 가동 1년 만에 지역에서 180명을 고용했으며 올해 380억원



강기정 광주시장(가운데)이 지난 2일 오후 광산구 평동산단에 위치한 세방리튬배터리(주) 광주공장에서 열린 '산·학·연·관 현장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김대웅 세방리튬배터리(주) 대표이사와 공장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광주시 제공

의 매출이 전망되는 등 지역 이차전지 산업을 견인하고 있는 광주 대표 기업이다. 한편 남구 도시첨단산단 내 대용량 배터리 시험인증센터를 비롯해

빛그린산단의 친환경자동차 부품 인증센터, 2024년 준공 예정인 배터리 모듈·팩 시험평가센터 등 광역시 중 유일하게 3개의 배터리 시험인증센터 및 배터리 관련 다양한 연

구시설과 대학을 보유한 광주시는 이러한 인프라를 활용해 차세대배터리 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유빈 기자

## 현대자동차, 2022 글로벌 브랜드 가치 173억 달러 달성

종합 순위 35위, 8년 연속 글로벌 30위권 유지

현대자동차가 8년 연속 글로벌 30위권 브랜드에 이름을 올렸다. 현대자동차는 글로벌 브랜드 컨설팅 업체 '인터브랜드(Interbrand)'가 발표한 '2022 글로벌 100대 브랜드(Best Global Brands 2022)'에서 브랜드 가치 173억 달러를 기록하며 종합 브랜드 순위 35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2005년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 처음 이름을 올린 이후 매년 전 세계 주요 브랜드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브랜드 순위

49계단, 브랜드 가치 138억 달러가 오르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왔다. (2005년 브랜드 순위 84위, 브랜드 가치 35억 달러) 특히 올해 브랜드 가치는 전년 대비 약 14% 오르는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으며, 종합 브랜드 순위는 2015년부터 8년 연속 30위권에 진입하는 쾌거를 이뤘다. (2021년 브랜드 순위 35위, 브랜드 가치 152억 달러) 인터브랜드 관계자는 “현대자동차는 친환경 모빌리티 생태계를 구

축하며 전동화 비전을 실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스며드는 브랜드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대자동차는 ‘인류를 위한 진보(Progress for Humanity)’라는 브랜드 비전 아래 고객에게 혁신적인 모빌리티 경험을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가 최초 적용된 아이오닉 5는 ‘2022 독일 올해의 차’, ‘2022 영국 올해의 차’에 선

정된 데 이어, 올해 4월 ‘월드카 어워즈(World Car Awards)’에서 ‘세계 올해의 자동차(World Car of the Year)’를 수상하는 등 높은 상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호평 세례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7월 공개된 아이오닉 6는 바람의 저항을 최소화한 부드러운 유선형의 외장 디자인과 사용자 중심의 여유로운 실내 공간, 산업부 인증 기준 524km에 달하는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18인치 휠, 통레인지 2WD 기준)로 폭발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2’에서 로보틱스와 메타버스가 결합된 ‘메타모빌리티(Metamobility)’를 통해 이동 경험을 가상 세계까지 확장하고 모든 사물에 이동성을 부여해 궁극적인 이동의 자유를 구현하겠다는 로보틱스 비전을 공개함으로써 미래 모빌리티 영역을 더욱 적극적으로 개척해가고 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통해 브랜드 신뢰도를 높인 것도 이번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게 된 이유 중 하나다. 현대자동차는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높이 인정받아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지속가능경영 평가인 ‘다우존스(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월드 지수

에 지난해 편입되기도 했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모빌리티 패러다임의 대전환 속에서 미래 신사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하고 고객에게 더 나은 내일을 선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브랜드 컨설팅 업체 ‘인터브랜드’는 매년 전 세계 주요 브랜드의 가치 평가를 실시해 글로벌 100대 브랜드를 선정하고 있으며, 각 브랜드의 가치는 재무상황과 마케팅 측면을 종합적으로 측정해 각 브랜드가 창출할 미래 기대수익의 현재가치를 평가해 산정된다. /이문수 기자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 그린맨 파워

나이가 들어도 자신있는 남자 Project

삶의 활력을 찾자!  
남성의 자신있는 삶!

기력이 없는 갱년기 남성 건강에 활력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MR-10과 소팔메토, 아연의 복합기능성 제품으로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